

이순신이 내게 가르쳐 준 의미

이지연

내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곳은 학교 였다. 일본의 침략으로 쑥대밭이 된 7년간의 기나긴 전쟁인 임진왜란에서 그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승리를 이끌어 냈다. 이순신과 조선 해군에 의해 일본은 치명적인 피해를 받았고 결국 일본은 패전한 채 돌아가게 되었다.

불멸의 영웅으로 , 위대한 해군장군으로 이름을 떨치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를 나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멋있고 뛰어난 그에게는 어떤 고민도 인간적인 한계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원균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고 일개 군인의 신분으로 강등되어 시련을 받았지만 그것 역시 뛰어난 인물에게 따르는 유명세같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는 괴로웠겠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미래의 후손들까지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위대하게 기록 될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 지난 여름이후 나는 그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중학교 2학년 쯤은 듯한 더위속에서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다.

시원한 바닷가라는 애기에 마음이 들떠서 좋아한 그 곳은 바로 통영 이였다.

그리고, 한산도에 가게 되었다.

작은 여객선을 타고 도착한 그 곳은 쓸쓸하고 한적했다.

구부러진 길을 따라 짙푸른 나무 그림자에 가려진 곳을 걸으며 도착한 곳에 수루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시에 나오는 깊은 시름을 하는 그곳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 보았다. 한없이 잔잔하고 맑은 바다를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그의 생각을 알기 위해 난중일기를 읽게 되었다.

치열하고 참혹한 임진왜란 속에서 정성들여 써 내려간 그의 글을 읽으며 나는 때로 울고 화가 났으며 안타까웠다.

1592년 부패와 안락함에 찌든 관리들과 왕은 나라에 위험이 생기는 것을 알지 못했다. 군정의 문란으로 병사들은 하루하루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제 욕심만 채우는 왕과 신하들은 전쟁이 터지자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고 뇌물과 청탁으로 장수가 된 자들은 맞서 싸우지도 않은채 항복해 버린다.

임진왜란의 피해는 말로 읊길수 없이 비참한 상황이었다. 조선 천지 사방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하며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시체를 잘라먹고 병든자나 약한 자를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난중일기를 보면서 이순신의 위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꼼꼼하며 매우 부지런 했다. 그의 일기를 살펴보면 단 하루도 동료나 부하를 만나지 않은 날이 없으며 항상 동료들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때로 그의 일기는 일처리의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 같았다.

그리고, 군율에 대해 엄격했다. 군율을 위반한 것에 대해 처벌한 내용이 나오는데 민가의 양식을 빼앗은 부하나 종에 대해 곤장을 때리는 내용도 있다. 심지어 백의종군되어 권율의 수하로 떠나는 길에서도 사사로이 백성들에게 밥을 얻어먹은 종들을 혼내고 자신이 쌀을 갚아 주는 일도 있다.

어머님과 아들의 죽음앞에서 죽고 싶다며 괴로워하면서도 그는 참고 견디었다. 묵묵히 써 내려간 그의 일기를 보면서 나는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행적을 읽고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순신이라는 이름은 내게 그전과는 또 다른 의미가 되었다. 보잘 것 없는 무관으로 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안타까웠고 고리타분한 신분제와 사대주의에 빠져 조국의 앞날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받는 무시와 모함을 참는 그의 모습에 분노했다.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백의종군하는 신세가 되어 병든 몸으로 길을 떠나는 뒷모습이 서러워 나는 눈물이 났다. 자식 같은 병선과 형제 같은 장수들이 치열한 전투 속에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에 오열하면서도 조국을 지키겠다 다시 일어서는 그에게 나는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오늘도 학교에서 돌아와 내일 챙길 준비물을 찾고 시험에 대비해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속 영어 단어를 외웠다. 오늘이 내일이고 모레가 내일 같은 하루가 또 지나간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하루를 살게 되었다. 나는 그의 삶에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국은 그저 땅덩어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죽음으로 지키려던 조국이 작은 들꽃이고 어린 새끼 사슴이고 흘러가는 나뭇잎이며 자신들의 후손인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다고 그러니 아직 적과 싸울 수 있다고 말한 그의 말처럼 내겐 시련을 견딜 믿음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량해전을 끝으로 나는 그에게 작별인사를 했고 그는 다시 역사속 인물이 되어 책장 안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과 음성이 내 어깨에 남아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나는 책장속 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순신 그의 삶의 길이 내 삶의 다리가 되었음을 나는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